

중소분쟁 초기 북한·중국의 연대에
관한 연구

The Movement of Solidarity of Sino-North
Korea in the Early Stages of Sino-Soviet
Dispute

박 중 철 (Park, Jong-chol) *

(E-mail : nimbin21@daum.net)

논문접수일 : 2008년 8월 1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21일

* 학위취득대학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현직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선임연구원

중소분쟁 초기 북한·중국의 연대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소분쟁 초기 북한의 입장을 중심으로한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시기적으로는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을 본격화 한 1959년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부터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다원화가 논쟁이 된 1960년의 모스크바 회의까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당시의 북중관계를 분석해보면 1956년 중파 사건을 둘러싼 북중갈등이 1957년 모스크바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타협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 이후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에 대하여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이론서기실에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중소분쟁 초기, 김일성은 중국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 5월, 파리정상회담의 결렬을 둘러싸고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항저우 회담을 개최하여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북한은 6월 부카레스트 회의부터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지지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은 연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11월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다원성이 인정되었는데, 북한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중국과 소련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하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다원화에 공헌하였다. 1950년대 중후반, 북한은 중소관계에서 중립적이었으나, 중소분쟁이 공개적으로 발전하면서 북한은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 이후 중소갈등이 증대되면서, 중소분쟁 초기 북한은 중국에 편향되면서도 중소에 대하여 주체적인 입장을 동시에 발전시켰다.

[주제어] 중소분쟁, 국제공산주의운동, 북중관계, 북중연대, 주체

I. 서론

본 논문은 중소분쟁 초기의 북한의 입장을 중심으로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중소분쟁의 초기는 1959년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동서(東西) 평화공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소를 중심으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의 갈등은 증폭되었고, 더욱이 1960년 5월 동서간의 파리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사회주의 각국들은 중소분쟁에 참여하였다. 특히 1960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세계 각국의 공산당·로동당 대표가 모여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논쟁하여 소련 주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다원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1959년의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에서 1960년 11월의 모스크바회의까지 초기 중소분쟁을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소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북중관계에 대해서 하여 연구한다. 이 시기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공개자료가 적어서 실증적인 사례연구는 미진하다. 기존 연구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중소분쟁 초기의 상황에서 비교적 중립적이면서 자주적인 노선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1962-64년에는 중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¹⁾

이상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중국과 북한 양당·양국 지도자의 회고록, 연보 및 구동독의 정보평가서 등을 이용하여, 중소분쟁 초기 단계를 북한의 입장에서 연구한다. 주체사상의 이론가이며 당시 조선로동당 이론 서기였던 황장엽의 ‘회고록’(황장엽 1999; 황장엽 2006)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논쟁과 로선 투쟁, 그리고 북중관계와 중소분쟁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의 변화가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이며 이론가인 우렁시

1) 중소분쟁에 관해서는 정규섭(1998), 이미경(2003), 오(Oh, 1978, 27-57) 등을 참조할 것.

(吳冷四 1999)의 중소분쟁에 대한 회고록 ‘십년논전(十年論戰 1956-1966中蘇關係回憶錄)’에는 당시의 북한과 중국 양국 최고지도부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협상내용의 일부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연보로는 저우언라이 연보(周恩來年譜 1997), 허룽연보(賀龍年譜 1996)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통일부(2006)가 정리한 독일지역 북한기밀문건집이 있는데, 이것은 기밀 해제된 구동독의 정보평가서로서 당시 중소분쟁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관한 동독 관련자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제3의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이 관찰하고 기록하였으므로 중소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상과 같은 기초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창현(2002)이나 란코프(Lankov 1995)가 발굴한 소련 관계자의 정세보고서 및 인터뷰를 통한 연구, 그리고 구소련의 기밀해제 문건을 이용하여 아시아 냉전사를 연구한 시모토 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 2005)와 모리 카즈코(毛利和子 1990)등의 연구를 검토한다.

본 논문은 통시적 분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북중의 양당 양국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중소분쟁 초기 단계인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문제부터 1960년 모스크바회의까지의 중소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둘째,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한 이후, 북중관계에서 부터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 이후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과 관련하여 북한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연구한다. 셋째, 파리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과정, 그리고 모스크바회의에서 북한의 중국지지를 통한 북한과 중국의 연대에 대하여 연구한다.

II. 중소분쟁 초기의 전개과정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을 비판하는 비밀보고를 하였다. 이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평화공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경제적 경쟁, 그리고 자본주국가 의회 내에서의 투쟁가능성 등을 발표하였다. 제20차 당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정책전환으로 사회주의 각국에서는 국내권력투쟁을 동반한 국내의 이데올로기 논쟁이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1956년 6월 폴란드 포즈난 사건과 10월의 정치변혁, 8월 북한의 종파사건, 10월 헝가리사건 등이 있었고, 중국 역시 소련식 집체적 지도체제를 받아들이고, 당 장정에서 마오쩌둥주의를 삭제하였다. 동유럽이 반정부자유화, 반소운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흐루시초프의 개입에 대하여 각국 사회주의 정당의 자주성을 지키라는 압력을 행사하였고, 동유럽에서 중국의 위상은 격상되었다. 1957년 동유럽사태의 안정화를 위한 흐루시초프의 요청에 의하여 저우언라이가 폴란드 및 헝가리를 방문하게 되었고, 흐루시초프는 각국 사회주의 정당의 자주성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1957년 마오쩌둥은 공산진영 및 중국공산당의 내부 단결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를 지지해 줄 것, 새로운 자본원조, 그리고 원자탄 제조과정을 포함한 최신무기와 아시아에서의 공동정책 추구 및 진보정책을 흐루시초프에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소련은 이론논쟁의 형태로 대립하였다. 이 단계의 중소분쟁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형태로 표출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7년 8월, 소련은 대륙간 탄도탄(ICBM)의 실험에 성공했으며, 10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소련이 군사, 기술면에서 미국을 앞질렀음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흐루시초프는 당내권력 투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대내외적 자신감을

배경으로 흐루시초프는 1957년 후반부터 미국과의 평화공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평화공존과 관련하여 1957년 10월 15일 중소 신군사협정이 파기된 것을 기점으로 중소 이데올로기 논쟁은 국가이익의 충돌로까지 확대되었다(毛利和子 1990, 67-68). 195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 40주년을 기념하여, 12개 국가 공산당들이 모여서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때 중국과 소련 지도부는 대미화해 등 평화공존과 전쟁가피론, 핵무기 기술 이전문제 등 ‘수정주의적 경향’을 둘러싸고 의견충돌을 보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강조하며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의 영도자로서 사회주의 승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하며 소련의 동구권에서의 위상을 강조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라며(中島峰雄 1989, 126) 흐루시초프의 소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지위에 도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58년 4월 중국공산당은 삼면홍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15년 내에 영국을 추월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영국을 지목했지만, 중국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소련을 추월했으니 15년 내에 경제·과학적인 면에서 소련을 추월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것이다²⁾. 중국은 1958년 8월 23일, 진먼따오(金門島)·마쭈따오(馬祖島)에서 포격사건을 일으켰고, 인도네시아 내전, 이라크 혁명, 미·영국군의 중동 진출, 미얀마와 파키스탄 등의 쿠데타, 알제리 임시정부 문제 등에서 중국은 민족투쟁의 완수를 고무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을 견제했다.

1959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의 소련공산당 제21차대회가 개최되었다. 흐루시초프는 평화공존 정책을 재확인하고, 미국과의 적극적인 테탕트를 추구하였다. 또한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를 공격

2) 마오쩌둥은 1893년 12월 생이고, 흐루시초프는 1894년 4월생으로, 두 지도자의 출생은 5개월 차이지만, 혁명경력에서 마오쩌둥이 훨씬 앞서 있어 1950년 중반까지 흐루시초프는 마오쩌둥을 혁명의 선배로서 대접했다. 마오쩌둥은 1956-57년의 이론논쟁에서 중국이 소련을 앞서고 있다고 자부했다.

했다. 6월 20일 소련은 ‘국방신기술에 관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중국의 안전 보장에 타격을 주었다.(毛利和子 1990, 73-74)³⁾ 중소분쟁은 중인국경분쟁을 둘러싸고 더욱 확대되었다. 티베트의 민족운동을 둘러싼 중인분쟁⁴⁾은 8월 25일 티베트와 네파(인도 동북지방 국경관리지구)사이의 맥마혼 선(MacMahon Line) 중간에 위치한 룡주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인도 국경수비대가 소규모 무력충돌을 빚은 사건이었다. 티베트인들의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무장봉기가 확산되어 중국과 인도사이의 불신이 깊어져 갔다(딕월슨 1985, 283-284). 8월의 중인국경분쟁에 대하여 소련은 엄정 중립을 천명했다. 중국지도부는 소련의 중립태도에 대하여 자본주의 국가 인도에 대한 소련의 사실상의 지지라고 인식하였다.⁵⁾

9월 15일에서 27일, 흐루시초프는 소련 수상으로써 최초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아이젠하워와의 정상회담에서 소련공산당 제 21차 대회에서 주장한 평화공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미소정상회담 직후인 9월 30일에서 10월 3일에 흐루시초프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기념행사의 참석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흐루시초프와 마오쩌둥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였다. 마오쩌둥과 흐루시초프는 중국의 주변지역, 대만과 티베트 문제, 중인분쟁 등에 대하여 논쟁을 했고, 특히 전쟁과 평화에 관한 논쟁은 완벽히 결렬되었다. 더욱이 흐루시초프는 중국·인도 국경분쟁 문제에 대하여 중립

3) 당시 소련은 미국 등 서방국가와 제네바에서 핵실험 금지조약을 진행하면서 소련 측이 중국에 신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서방에 알려지면 사회주의 국가의 세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몇 개의 중요사항은 중단하고 2년 후에 정세를 보면서 다시 토론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4) 1959년 3월 10일 발생한 티베트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20일부터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진압을 시작하였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티베트 지방정부해산령을 내리면서 티베트를 둘러싼 중인분쟁이 발생하였다. 4월 3일, 네루 인도수상이 달라이 라마의 인도 입국을 허가하고, 예우를 천명한다.

5) 1962년 10월-11월의 중인국경전쟁에 대하여 김일성은 네루정부를 침략자로 비난했지만, 흐루시초프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1962년 8월, 소련은 인도에 미끄기 공장 건립을 위한 합의서를 조인하는 등 사실상 인도를 지지했다.

을 표방하면서도 인도 측을 두둔하였다(周恩來年譜 257-259; 賀龍年譜 643-644). 10월 2일, 흐루시초프와 마오쩌둥은 국제문제에 대한 현안 조율을 위하여 7시간 동안 회담을 했지만, 흐루시초프는 타이완에 대한 무력정책과 중인국경분쟁에 관하여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중국은 소련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이 희생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논쟁을 하였다. 즉 중소 간의 의견불일치를 재확인한 것이다(毛利和子 1990, 74-75). 또한 흐루시초프 1959년 중국에 약속한 핵 기술의 제공을 거절했으며, 중국을 떠나면서 냉전을 청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중소분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이 회의는 중소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되었다.

1960년 4월 1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이론기관인 '홍기(紅旗)'에 레닌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레닌주의 만세'라는 논설을 게재되었는데, 소련의 평화공존이라는 전쟁부정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중국은 소련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분석과 계급투쟁의 이론이 낡은 것이라는 자의적인 논리에서 출발하여 폭력, 전쟁, 평화공존 등 일련의 문제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를 뒤집으려고 기도 한다고 공격하였다. 이에 대하여 흐루시초프는 '공산주의는 현실주의이다. 공산주의는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두 개 체제의 국가 간의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공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udson et al. 2004, 232-235). '레닌주의만세'로 중소 간에는 공개논쟁이 촉발되어, 그 이후 논문, 성명 연설 등을 통한 공개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의 형태로 양국의 갈등이 전개되었다.

5월 16일, 파리정상회담은 미군 U2기의 소련 침범을 둘러싼 문제로 결렬되었다. 아이젠하워는 흐루시초프의 영공침공에 대한 사과요구를 거절하였고, 흐루시초프는 미국의 스파이 행위를 비난했다. 미소 갈등에 따른 파리정상회담 결렬은 마오쩌둥에게 흐루시초

프를 공격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파리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관련하여 중소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중소분쟁을 결말짓기 위해서 81개국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Hudson et al. 2004, 17-18).

6월 20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각국공산당(12개국) 회의에서 전쟁과 평화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격렬해졌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 가능성이 나타났다. 6월 21일,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루마니아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제국주의가 존재해도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평화공존론을 주장하였다. 6월 24일에서 26일,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사회주의 각국 공산당, 로동당 대회에서 소련과 중국은 평화공존론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 공산당들이 소련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베트남은 표면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7월 14일에서 16일, 중국지도부는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 그리고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관계의 역사를 회고하는 베이파이허(北戴河) 회의를 개최했다. 저우언라이 총리의 보고에서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부분은 한국전쟁(항미원조) 전쟁 당시의 스탈린의 태도를 비판하였다.⁶⁾ 그리고 7월 16일은 소련은 일방적으로 중국에 파견한 소련인 전문가 1390명의 1개월 이내 철수와 중소 간 600개의 협정 및 계약의 파기, 그리고 물자 및 설비 제공을 중지한다는 결정과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257개 항목의 취소 등을 통보했다. 7월 31일에는 신장(新疆)과 우즈베키스탄 변경지역에서 중소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1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81개국 세계 공산당대회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둘러싼 최초의 심판장으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였다. 이 회의는 크레믈린 궁전 안의 레닌의 집무실에서 진행되었다. 공산주의 진영은 중국과 소련이 대표하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

6) 吳冷四 1999, 331-334; 특히 항미원조(한국전쟁)문제는 326-327을 참조할 것.

누어져 한달 동안 격렬한 이데올로기 논쟁을 진행하였다. 12월 의 이 대회에서 ‘정책 선언 및 세계인민들에 대한 호소문’(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하였다(Lowenthal 2004, 19).⁷⁾ 모스크바 선언은 중소 양국의 견해가 절충된 것이었으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다중심주의를 소련이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Lowenthal 2004, 17-18).

모스크바 선언으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통합되는 듯 보였으나, 1961년 10월 17일부터 31일에 열린 소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서는 흐루시초프가 알바니아로동당 지도자들의 정책을 비난하고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반당 그룹 문제를 제기하여 비스탈린화 정책, 평화공존론을 주장하면서 공개논쟁이 재연되었다(毛利和子 1990, 65).

Ⅲ.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이후 북한의 입장

1. 북한의 중립적 입장

항일전쟁,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조선인 중국인 공산주의자들은 혈맹관계를 형성하였다. 한국전쟁 정전이후 중국의 전후복구지원을 매개로 하여 북한과 중국은 협력하고 있었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친중계열의 연안계 파벌이 성장하면서 북한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성장하였다. 그러나 북한내의 중국의 영향력 증가는 북한과 중국의 갈등의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항일전쟁시기부터 조·중 공산주의운동에서 민족갈등이 내재해 있었고, 한국전쟁 이

7) 이에 대하여 로웬탈은 ‘중국과 소련공산당 지도부 사이의 분쟁에 있어 어느 일정의 한 단계, 즉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의 원천으로서 소련공산당의 위치에 대해 마오쩌둥의 추종자들이 최초로 공개적으로 도전했던 단계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소련과 중국 양국공산당의 역사적 차이, 권력 장악의 방법, 권력장악 이후의 사회변혁의 방법 등은 너무나 다르다. 이런 차이점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풍토, 당 내부형태, 그리고 활동방식을 만들어냈다’라고 언급하였다.

후 북한에서는 연안계와 김일성의 만주파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1955년 12월, 김일성은 마오쩌둥, 쑹더화이 등의 중국지도부와 가까운 사이였던 연안계의 박일우 등을 반당 종파행위의 혐의로 출당 조치했다. 연안계와 소련계를 배격하는 과정 중에 1955년 12월 28일 노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연설하였다(이종석 1995, 242-246). 195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의 파벌투쟁을 둘러싸고 북중 간에는 갈등이 존재했다.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를 둘러싸고 1956년 2월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내부 권력투쟁이 진행되었다. 소련계와 연안계가 연합하여 개인숭배문제를 둘러싸고 김일성에게 도전을 한 것이다. 6월-7월, 김일성이 동유럽을 방문하는 동안 중국과 소련의 지지를 받는 반김일성 집단이 결성되었고,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김일성 그룹은 개인숭배를 비판하며 당권에 도전했다. 그러나 만주파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했고, 반김일성그룹은 ‘반혁명 종파분자’라는 혐의로 숙청되었다(안드레이 란코프 1995, 218-220; 시모토마이 2006, 143; 정창현 2002, 225-228). 흐루시초프와 마오쩌둥은 북한의 권력투쟁과 관련하여 미코얀 부수상과 쑹더화이 국방부장이 지도하는 중소공동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조선로동당 전원회의가 열려서 8월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번복하고, 숙청된 연안계와 소련계의 당적을 원상회복하였다(이종석 2000, 214). 이 시기에 소련공산당의 중국, 북한, 헝가리와 폴란드 등의 형제국에 대한 간섭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소련과 중국은 갈등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의 권력투쟁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1956년 말부터 김일성은 연안계와 소련계에 대한 숙청을 지속하였다(이종석 2000, 214).

종파사건 이후, 북중지도자간의 교류가 중단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소갈등과 더불어 일련의 동유럽사태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북한과 중국은 접근하였다. 1957년 11월 모스크바의 각국 공산당대회에서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중국의 종파사건 개입에 대하여 사과함으로써(정창현 2002, 244-245) 양당·양국의 긴장은 봉합되었다. 1957년 12월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정치적인 자주를 선언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대국주의적, 배외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시모토마이 2005, 107). 중소갈등의 상황 속에서 김일성은 좀 더 주체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1958년 6월 14일, 로동신문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사설 ‘현대 수정주의와의 투쟁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를 게재했는데, 이종석은 소련공산당 노선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이종석 2000, 218). 1958년 11월과 12월,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를 만났다. 이것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에 대한 감사의 방문이기도 했다. 이때 김일성은 저우언라이에게 현대수정주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반드시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 투가리노프의 정세보고서에 의하면 ‘반혁명과의 투쟁을 목적으로 국내의 적대분자 및 파괴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1958년 10월부터 1959년 5월까지의 시기에만 약 9만 명이 자수했고 1만 명이 사회안전부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한다(정창현 2002, 232-233).

이런 상황으로 볼 때 1956년의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이 철군한 시기까지는 북한은 중소분쟁에 대하여 중립적이거나 혹은 명확한 방향을 명확히 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북한은 중소갈등상황에서 중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자주 노선을 표방하고 있었다.

황장엽은 이 시기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북한지도부가 다음과 같이 인식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중국은 1956년 헝가리의 반정부폭동은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무산계

급독재를 약화시키는 수정주의 노선을 강요한 결과라고 단정하며 반수정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었다. 반정부사태 이후, 헝가리는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었고, 스탈린이 죽었으니 마오쩌둥을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친중정책을 쓰고 있었다.

알바니아 역시 중국을 지지했다. 알바니아는 수정주의 국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고, 경제가 곤란하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원조를 요청하였는데, 흐루시초프는 원조를 주면서 조건을 달았지만, 중국은 부대조건을 달지 않았을 뿐더러 알바니아가 요구가 원조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김일성은 중소 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에 대하여 ‘우리도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흐루시초프는 마오쩌둥의 도전에 맞서 국제공산주의 운동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보려는 속셈으로 중국의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소부르주아적 조급성이라고 비웃었다. 흐루시초프는 마오쩌둥이 방귀를 뀌려다가 똥을 싸다고 비웃었다. 이에 대하여 마오쩌둥은 실추된 자신의 권위를 만회하기 위하여 사상이론 투쟁에 적극적이었다.

김일성은 두 대국 간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천리마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선전했으며, 경제, 문화건설에도 자주적인 노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황장엽 2006, 152-153; 황장엽 1999, 127-129).

2. 북한의 수정주의 반대 움직임

1959년 1월, 소련공산당 제21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평화공존을 주장했다. 이 대회에 참가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는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 등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논의했다. 1월 25일, 김일성과 저우언라이의 회담에서 소련을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하는 문제에 대하여 양측은 원래 부르는 방식을 현재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월 26일, 저우언라이는 김일성에게 ‘소련을 지도자(首領, 우두머리)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저우언라이와 흐루시초프의 협상에서 소련공산당이 중국공산당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周恩來年譜 1997, 203-205).⁸⁾ 세계혁명에서 지도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소련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으며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다원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북중 양당은 소련공산당을 공식적으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인정하면서도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방식으로 소련을 비판하였다.

1959년 4월 3일에서 6월 16일, 최용건(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국가수반)은 소련, 동구권 및 몽고 등을 방문했다. 북한대표단의 표면적인 방문 목적은 조선전쟁기간과 전후 복구기간에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이 보내준 원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북한 대표단은 헝가리, 알바니아 등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입장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특히 소련의 입장에 반대하는 알바니아 등의 자주적인 입장에 대하여 매우 높이 평가했다(황장엽 1999, 127-128). 또한 티베트를 둘러싼 중인국경분쟁에 대하여 8월 흐루시초프는 엄정 중립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도를 두둔한 것과 달리 9월 12일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입장을 반발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정규섭 1988).

10월의 중국건국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흐루시초프와 마오쩌둥의 회담은 결렬되었다. 김일성은 이 기념행사에서 “중국공산당과 그

8)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에는 1월 21일에서 2월 7일, 조선로동당에서는 김일성 수상, 홍명희 부수상, 강양욱 최고인민회의 서기장, 황장엽 이론서기 등이 참석했고, 1월 22일에서 2월 8일, 저우언라이가 이끄는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참석했다. 1월 25일 회담에는 북측에서는 김일성, 박정애, 박종욱, 이송운 등이 참가했다. 1월 26일 회담에는 중국측에서 강성(康生), 리웨펑(李雪峰), 리우닝이(劉寧一) 등이 참가했다. 26일 회담에서 저우언라이는 김일성에게 ‘1958년 중국의 대약진의 상황과 경제건설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설명했다. 2월 6일, 김일성과 흐루시초프는 회동하였다.

수령 마오쩌둥 동지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일반적 명제로 중국인민을 승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국제공산주의운동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과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연설했다(로동신문(1964/ 10/ 29). 당시의 마오쩌둥과 흐루시초프의 김일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중소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각각 김일성에게 접근하였다. 9월 17일, 루산(廬山)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핑더화이 국방부장은 대약진정책을 소부르주아적 열광이라고 비판하다가 마오쩌둥과 불화로 실각하였다. 마오쩌둥은 북한에게 핑더화이의 실각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라고 설명했다(시모토마이 2005, 144). 흐루시초프는 마오쩌둥에게 북한의 김일성 체제 하에서 중국과 소련으로의 정치적 망명자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과 소련은 김일성과 우호관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월 흐루시초프와 마오쩌둥의 회담직후, 1959년 11월 소련정치국회의에서 흐루시초프는 중국의 소련대사와 마오쩌둥이 언급하였던 김일성에 대한(좋지 않은) 인식을 김일성에게 통보할 것을 결정했다(시모토마이 2005, 133-134). 또한 11월 10일, 중국은 중인국경분쟁에 대하여 소련의 엄정중립은 실제로는 중국비난이라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 시기에 대하여 황장엽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려고 마오쩌둥은 흐루시초프와의 이데올로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일성은 그런 두 대국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려고 노력하며 자주적인 노선을 역설했다”고 한다(황장엽 1999, 127). 1959년 10월에 작성된 동독의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소련공산당 제 20차 이후 중소분쟁은 평화공존과 관련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였다. 북한은 특히 개인숭배 문제를 둘러싸고 소련에 반발했으며, 중국과 연대하였다. 조선의 ‘주체’가 갖는 민족주의적 요소는 맹목적인 민족성으로 인하여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긴장 관계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인민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베를린, 1959년 10월 20일)”,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2006. 20-22).

1960년 1월 7일에서 17일, 마오쩌둥은 항저우(杭州)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토론하였다. 하나는 1960년대 국민경제계획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전략문제이다. 국방전략문제와 관련하여 마오쩌둥은 국제정세에서의 미국의 제국주의와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를 동시에 비난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중국·인도변경을 비롯하여 중국의 주변국경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吳冷四 1999, 236-258). 중국지도부는 1960년 3월 20일, 북한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 간의 우호협작과 군사원조 조항을 담은 우호동맹조약을 맺기로 결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공식적인 군사동맹조약 체결이 추진되었다(周恩來年譜 1997, 295).

1960년 초부터 북·중 간에는 국경분쟁이 일기 시작했고(이종석 2002, 228) 이후 1960년 5월 중국과 북한은 ‘변계협정’에 서명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백두산을 북중 양국의 변경으로 획분 하면서, 천지가 양국 공유로 귀속되는 것이었다(吳冷四 1999, 248-249).⁹⁾ 북중 간의 국경문제의 해결과 동맹조약의 체결은 중소분쟁에 기인

9) 중국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저우언라이와 천이가 주변국을 방문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미얀마 대통령(奈溫)은 1월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변계협정’을 체결해서, 국경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중국과 미얀마의 우호와 불가침조약(中緬友好和互不侵犯條約)을 체결했다. 네팔 수상(柯伊拉臘)은 3월 초 중국을 방문하여, 3월 하순, 중국-네팔 변계조약과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변계문제를 해결했다. 1월 저우언라이 총리는 네루에게 편지를 보내서, 중국과 인도 간 중인변경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건의하였고, 네루는 2월에 동의한다고 표명하였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네루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고, 4월에 인도를 방문해서 중인변계문제를 협상하였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아시아 각국을 방문하였고, 4월 15일부터 19일에 미얀마, 19일부터 26일 인도, 26일부터 29일까지 네팔, 5월 5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9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몽고를 방문했다. 몽고에서는 중몽우호조약을 체결했다. 8월 천이는 아프카니스탄을 방문하여 중국-아프카니스탄 우호호조 및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다.

북한지도부는 1959년부터 중소 이데올로기 논쟁이 본격적이었다고 인식하였고, 김일성은 중소분쟁을 이용하여 대국 사이에서 주체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김일성은 로동당 이론서기실에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황장엽 1999, 127). 1959년 10월 중국 건국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마오쩌둥과 흐루시초프의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1960년 4월 중국 ‘홍기’에 ‘레닌주의 만세’가 게재되어 중소분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에 편향되기 시작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황장엽의 회고록과 동독의 정보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중국에 편향된 듯한 입장과 더불어 주체적 입장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었다고 기술되어있다.

IV.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다원화 과정에서 북한 · 중국의 연대

1. 파리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중국 지지

1960년 5월의 파리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제공산주의들은 중소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Hudson et al. 2004, 17-18).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노력은 실패한 것이므로 북한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흐루시초프의 미국 비난을 지지하였다. 5월 19일, 김일성은 북경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에 항저우에서는 중공공산당 중앙의 정치국회의가 열려서 중인변경문제, 파리정상회담의 결렬 문제 등을 논의했다. 마오쩌둥은 항저우 정치국회의에 김일성을 초대했다. 22일, 항저우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국제정세, 중소관계, 소련상황, 저우언라이의 몽고 방문 등 국내외내 정세를 논의하였

다. 특히 파리정상회담의 결렬과 흐루시초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周恩來年譜 1997, 320-321). 이 회의는 소련공산당 제 20차 대회 이후, 북·중 지도부가 처음으로 함께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 양당과 소련의 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의 두 개의 무산계급독재정치(兩輪无産階級專政의歷史經驗)의 역사경험과 레닌주의만세 등의 3편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였다(吳冷西 1999, 269-270). 북한은 1959년부터 내부적으로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 항저우 회의를 통하여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이 회의 이후, 동유럽에서 열린 일련의 공산당 로동당대회에서 북한대표단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지지했다.

6월, 부카레스트에서 사회주의 각국 공산당, 로동당대회가 열렸을 때도 소련과 중국은 평화공존론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 공산당들이 소련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북한과 베트남은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대표단 단장인 김창만(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축하연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머슴군들인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려고 흉악한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수정주의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면서 중국을 지원하였다. 그러면서도 “위대한 소련은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운동의 중심에 확고히 서 있으며”라고 언급하면서 소련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¹⁰⁾ 25일 북한대표단이 친중연설을 하였고, 26일, 중국대표단은 흐루시초프의 언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부카레스트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연대하여 소련주도의 사회주의 진영을 인정하면서도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를 비난하는 방법으로 소련을 공격했다.

1960년 10월, 중국은 1억 5천만 달러의 장기차관과 기술 원조를

10) “로동신문(1960년 6월 25일)”, (정규섭 1998)에서 재인용.

북한에 제공할 것을 결정하고, 중국은 항미원조전쟁 참전 10주년 기념식에 대규모 고위군사친선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반대로 소련은 10월로 추진했던 흐루시초프의 북한 방문을 취소하였다(정진위 1985, 60-61).

2. 모스크바 회의에서의 북한의 중국 편향적 태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세계 81개국 공산당·로동당 대표자 대회가 개최되어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논의되었다. 공산주의 운동이 다원화되고 중국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중소 간의 타협은 중국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 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양국 간의 국가이익을 둘러싼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으며, 중소분쟁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소련의 수정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중소분쟁에서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이 회의에는 사회주의 국가 최고 지도자 중 하나인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불참했다.

조선로동당에서는 김일(단장), 김창만(사상비서), 황장엽(이론고문) 등이 참가했고, 중국공산당에서는 류샤오치(단장), 덩샤오핑(부단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도자와 이론가가 참석했다. 중국단원들은 마오쩌둥은 일선에서 물러나 쉬고 있고, 사실상 수령은 류샤오치라고 주장했다. 이론 논쟁은 덩샤오핑과 평전이 주도했다.¹¹⁾ 북한은 베트남, 알바니아와 함께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소련을 지지했으므로, 중국 측은 7대 1의 비율로 공격을 받아 발언내용에 힘을 얻지 못했고 소련공산당의 주장은 더욱 강성해졌다.

11) 정식 구성원으로는 정치국 위원 쑹진(彭眞), 리정궈(李井泉), 후보위원 루딩이, 캉성, 서기처 후보서기 양상쿤, 후차오무(胡喬木), 그리고 3명의 중앙위원 류딩이(劉寧一), 라오청즈(廖承志), 주소대사 류샤오(劉曉) 등이 참가했다.

베트남의 호치민은 중소관계에서 타협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재 역할에 노력했다. 흐루시초프가 연설할 때 중국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의 대표들은 자리에 앉아있었다. 호치민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레두안(Le Duan) 당 제 1서기 등이 만류했다.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이 서로를 각각 국제종파주의와 수정주의라고 비방하는 가운데 호치민이 중재를 위해 노력하였다(황장엽 2006, 156-157).

황장엽은 회의 핵심 쟁점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로 파악하고 있었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혁명적 독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기가 끝나면 독재를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과도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소련과 중국이 대립했다고 한다(황장엽 2006, 154-155). 소련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끝났다. 따라서 점차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발전과정은 생산방식, 즉 경제제도와 생산력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소련은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수립했고, 사회주의에 걸맞은 생산력을 갖추었다는 논리였다. 소련은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미국과의 화해도 시도하였다. 흐루시초프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동맹의 역할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확대하며, 개인숭배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소련의 주장에 반대했다. 계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과도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덩샤오핑은 연설에서 소련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덩샤오핑의 연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는 토론을 했다. 조선로동당은 “중국공산당을 국제종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국공산당은 국제주의에 충실한 당이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그것을 증명했다. 조선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에 맞서 백만 대군을 보냈고, 그 가운데 40만 명이 희생되었다. 국제주의에 충실한 중국공산당을 어떻게 국제종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중국공산

당을 강력하게 지지했지만, 조선로동당의 발언에 대하여 대부분의 정당은 찬동하지 않았다(황장엽 2006, 155-156).

14일, 오전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오전 내내 김일 대표가 독점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중국과 소련을 공동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우두머리로 할 것’에 대하여 두 차례, ‘중국이 조선을 도운 것’에 대하여 두 차례, ‘중국혁명의 중대한 역사적 의미와 중국의 경험이 후진국에 주는 큰 의미’에 대하여 한 차례 강조했고, ‘중국당은 혁명과 국제주의에 충실하다는 것을 믿는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협상 일치의 원칙을 준수하고, 각 형제당은 서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吳冷四 1999, 381). 30일 오전의 중소 정상 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29일 밤 중국은 알바니아, 베트남, 북한 등과 협상하였다.

김일이 국제전화로 김일성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자 김일성은 “우리가 백두산에 다시 들어가 감자를 캐먹으면서 유격투쟁을 할 지언정, 소련의 대국주의적 압력에는 절대로 굴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 김일성은 국제전화를 소련 교환수들이 관리하며 그것이 소련지도부에 보고된다는 점에서 소련지도부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또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회의가 결렬될 경우에 대비하여, 김일 단장과 황장엽 서기는 숙소에서 ‘북한의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준비했다. 저녁 무렵, 북한의 성명서 초안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중소 간의 타협이 성립되었다(황장엽 2006, 157-158). 그러나 황장엽은 “중국과 소련은 타협하는 척했지만, 서로의 입장과 노선을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조선로동당의 국제부장은 개인승배를 반대하는 조항을 철회하도록 소련공산당에 요구하기로 하기로 중국 측과 약속하였지만 중국대표단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일방적인 중소 화해에 대하여 북한 측은 중국 측에 불만을 토론했다. 알바니아 대표단 등의 일부 대표단은 흐루시초프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황장엽 2006, 158-159). 북한대표단은 소련공산당 제 20차 대회에 관

한 문제에 대한 초안에서 개인승배반대문제와 함께 소련공산당이 조선당 내에서 반김일성 책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吳冷四 1999, 414).

개인승배문제는 1956년 종파사건에서 김일성을 반대했던 소련계의 구호라는 점을 들어서 반대했다. 그 결과 초안에서 북한, 알바니아 등이 강력히 제기한 개인승배반대문제는 수정되었다.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소련의 개인승배반대에 대하여 중국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맞대응했다. 이 대회에서 중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초안이 작성되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중국은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고, 북한은 베트남, 알바니아 등과 함께 중국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우두머리)로 내세우는 데 공헌을 하였다.

알바니아는 세계 81개국회의에서 개인승배문제와 중국지지 때문에 소련과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1961년 2월, 북한은 알바니아 노동당 제 4차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4월에는 알바니아 정부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종석 2002, 223). 결국 소련과 알바니아는 1961년 12월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V. 결론

황장엽의 ‘회고록’과 우링시의 회고록 ‘십년논전’, 그리고 구동독의 정보평가서 ‘독일지역 북조선기밀 문서집’ 등을 분석하면 중소분쟁 초기의 북한지도부의 인식, 그리고 북한과 중국 지도부의 회담 내용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중소분쟁 초기의 북한의 입장을 중심으로 북중관계를 구성해 보면, 이 시기에 북한과 중국은 연대하였고, 또한 대국 간의 분쟁 속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연대와 더불어 주체적 노선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

다.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데올로기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북한에서도 이데올로기 논쟁과 권력투쟁이 결합된 1956년 8월 종파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의 내부권력투쟁에 중소공동대표단이 파견되어 중국과 소련이 북한내정간섭을 하였지만, 중소분쟁과 동유럽사태에 따라서 개입이 약화되었다. 중소공동대표단의 내정간섭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되었지만, 중소갈등을 배경으로 1957년 11월 모스크바의 각국 공산당대회에서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타협하였고, 더욱이 중국인민지원군은 철군하였다. 이 시기의 중소분쟁을 둘러싸고 김일성은 두 대국 간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주적인 노선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

1959년 1월, 소련공산당 제21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평화공존론을 주장하고, 당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수령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아서 북한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다원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흐루시초프와 마오쩌둥은 경쟁적으로 김일성에 접근하였지만, 김일성은 로동당 이론서기실에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즉 북한 내부적으로는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를 명확히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0년 5월, 파리정상회담의 결렬을 둘러싸고 김일성과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등이 항저우 회담에서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 이후 처음으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공동으로 논의하였다. 김일성은 중국의 입장을 드러낸 문장을 높이 평가했으며, 6월 부카레스트 회의부터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은 연대 움직임을 보였다. 파리정상회담의 결렬을 둘러싸고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중소분쟁에 대한 결말을 짓기 위해 11월 모스크바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소련의 견해가 절충된 선언문이 채택되어 국

제공산주의 운동의 다원화가 승인되었다. 소련이 소련중심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다중심주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중소분쟁 초기국면에서 중국이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모스크바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은 강력하게 중국을 지원하였고, 김일성은 국제전화로 백두산에서 유격투쟁을 하더라도 소련의 대국주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며 소련 지도부를 압박하였다. 모스크바 회의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북한은 중국과 연대를 통하여 중국의 승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딕월슨 저, 한영석 옮김, 1985, 『주은래: 중국혁명을 이끈 한 인간의 일대기』. 한길사.
- 박종철, 2008,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에서의 철군을 둘러싼 북중 관계연구”, 『군사사연구총서』, 제5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이미경, 2003, “1950-60년대 북한·중국·소련 삼각관계의 형성과 균열” 『중소연구』.
-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
- , 2000, 『북조선-중국관계: 1945-2000』, 중심.
- 정규섭, 1998, “중소분쟁에 대한 북한의 대응: 1960년대를 중심으로”, 『동북아평화연구논총』, 제4권 제1회.
- , 1988, “중소분쟁에 대하여 북한의 대응 - 1960년대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논총』, 제4권 제1호. 관동대학교.
- 정진위, 1985,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 법문사.
- 정창현, 2002, 『북한현대사』, 민연.
- 통일연구원편집부, 2006, 『독일지역 북조선기밀 문서집』, 도서출판선인.
- 황장엽, 2006, 『황장엽 회고록』, 서울: 시대정신.
- , 1999,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 『周恩來年譜1949-1976』, 1997, 中央文獻出版社.
- 『賀龍年譜』, 1996, 人民出版社.
- 吳冷四, 1999, 『十年論戰1956-1966中蘇關係回憶錄』.
- 下斗米伸夫 저, 이혁재 옮김, 2006, 『북한정권탄생의 진실』, 기과량.
- 毛利和子 저, 김하림 옮김, 1990, 『중국과 소련』, 사민서각.
- 中島峰雄, 1989, 『中國: 歷史·社會·國際關係』, 中公新書.

- Andrei Lankov 저, 김광린 옮김, 1995, 『북한현대정치사』. 오름.
- Chung, Chin O., 1978, P'yongyang between Peking and Moscow:
North Kores's Involvement in the Sino-Soviet Dispute, 1958-1975. The Universtiy of Alabama Press.
- G, .F. Hudson, Richard Lowenthal, and Roderick MaFarquar, 김
유 옮김, 2004, 『중 소분쟁: 자료와 분석』. 인간과 사회.

The Movement of Solidarity of Sino-North Korea in The Early Stages of Sino-Soviet Dispute

Park, Jong-chol
(Chon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early stages of the Sino-Soviet dispute. The timeline covers from 1959 on the 21st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CPSU), the time when Nikita Khrushchev had attempted actively to seek peaceful coexistence until 1960 on Moscow Conference, the time when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had been recognized. In order to conduct the positive study, the study mainly analyzes the chronological personal history and memoirs such people as Hwang-Jangyub, Wu Lingxi, and Zhou Eunlai. According to primary documents, both North Korea and China attempted to create solidarity,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developed self-reliance position to take an advantage of Sino-Soviet rivalry in the early stages of the Sino-Soviet dispute.

After the 21st congress of the CPSU, about Khrushchev's peaceful coexistence Kim-Il-sung indicated the direction against revisionism to the Secretary's office of theory, Chosun Labor Party. On May 1960, Kim Il-sung and Mao Zedong had a summit

meeting in Hangzhou about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because the much-heralded Big Four summit in Paris has failed before it even started. Thereafter, from the Bucharest Conference to the Moscow Conference of November 1960, North Korea's position openly supported to China's opinions, and North Korea and China had trend of solidarity.

On Moscow Conference, North Korea contributed to divers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Keywords :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Sino-Soviet Disput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olidarity of Sino-North Korea, Ju-Chae Ideology